Ⅱ 새로운 노년층과 금융 수요

○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개인적인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음

-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갈수록 은퇴자들의 가입 기간 길어지면서, 수급자와 수급액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67만 명, 평균 지급액[1]도 연 500만 원을 상회하여, 2012년의 수급자 약 352만 명, 평균 지급액 약 328만 원을 크게 상회함

〈그림 Ⅱ-1〉 국민연금 수급자 및 평균 수급액 추이

(단위: 천 명,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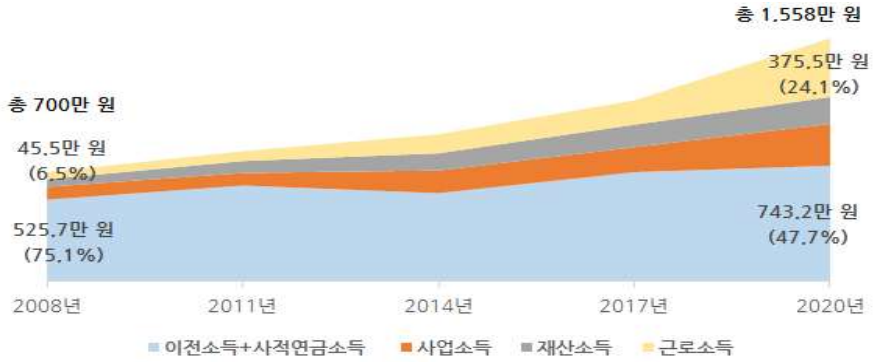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경제력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고령자의 개인 소득은 2020년 근로소득이 2008년 연평균 45.5만 원에서 375.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도 약 700만 원에서 1,558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1) 본고의 평균 지급액은 총지급액을 수급자로 나눈 것이며, 총지급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모든 지급액을 합한 수치임

〈그림 Ⅱ-2〉 고령자(65세 이상)의 연간 개인소득 구성 항목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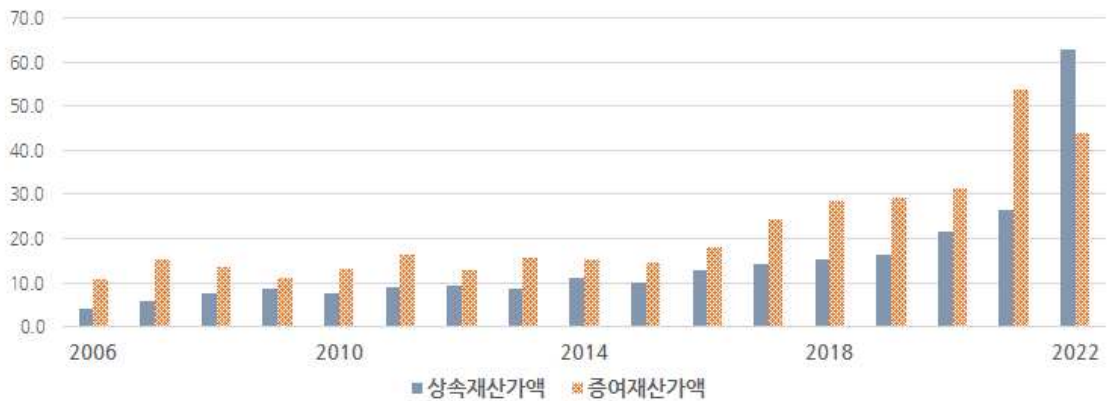


자료: 이윤경 외(2021)

-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 등 주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자금 이동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속과 증여자산 가액은 2002년 모두 10조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에는 각각 40조 원을 상회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Ⅱ-3〉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과거에는 가족 내 이루어지던 요양, 친목 등의 기능이 가족 구성원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노인의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위험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대부분 고령층이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모두 기관 수와 병상 수에 있어서 2008년 대비 두 배를 초과하고 있음

〈표 Ⅱ-1〉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2008년도	2012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요양병원	690 (7.6만)	1,103 (14.0만)	1,428 (24.2만)	1,529 (28.1만)	1,582 (30.8만)	1,464 (27.6만)
요양시설	1,332 (6.7만)	2,610 (11.9만)	3,136 (15.0만)	3,289 (15.4만)	3,844 (18.6만)	4,057 (19.9만)

주: 1) ( ) 안은 병상 혹은 침상 수임
2) 요양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만 포함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자료: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시설은 통계청, 노인복지시설현황)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을 참조함

- 자녀와 분리되어 사는 고령층 가구, 만혼에 따른 1인 가구, 무자녀 혼인부부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50, 60대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각각 18.9%, 14.4%로 전체평균 15.0%[2]와 유사하거나 높음

〈표 Ⅱ-2〉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시장규모 추이

(단위: 만 가구, 조 원)

구분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7년도 (예상)
반려동물 양육가구	457	593	511	591	638	-
반려동물 시장규모	1.9	2.3	2.7	3.0	3.4	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4. 23),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 키운다"; 지인배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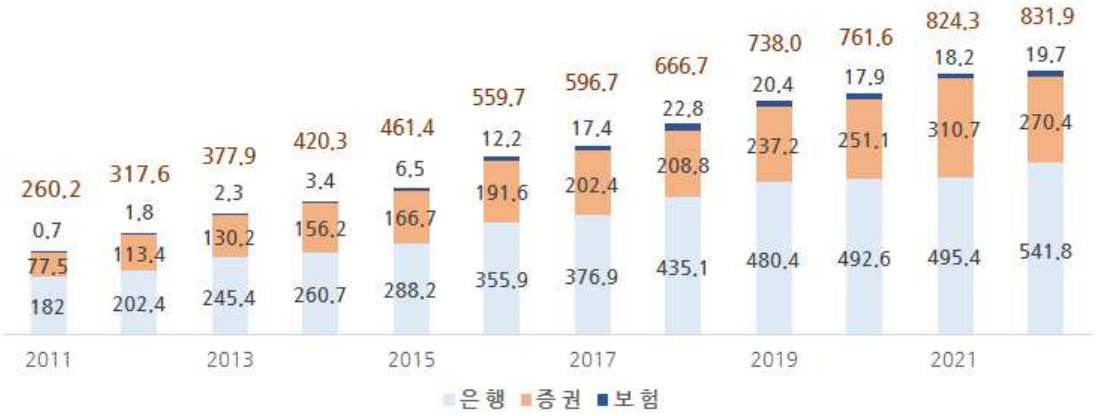
○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자산관리, 상속·증여, 건강관리, 요양, 반려동물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독립적인 삶을 사는 고령층이 자산을 운용하고 유언, 상속, 후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인 신탁의 경우 타업권에 비해 보험산업의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 신탁·수탁고를 보면 보험산업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통계청 보도자료(2021. 9. 27),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그림 Ⅱ-4〉 금융업권별 신탁 수탁고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금융감독원, 연도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 보험산업은 독립적이고 경제력 있는 노인층의 금융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은 치매, 간병 등에 대한 보장에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건강관리, 신탁 등 신시장 개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대표적인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개인성보험의 보험료 추이를 보면 모두 2013년경을 기점으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되는 현상이 발견됨
  -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보험료 납입 주체인 젊은 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층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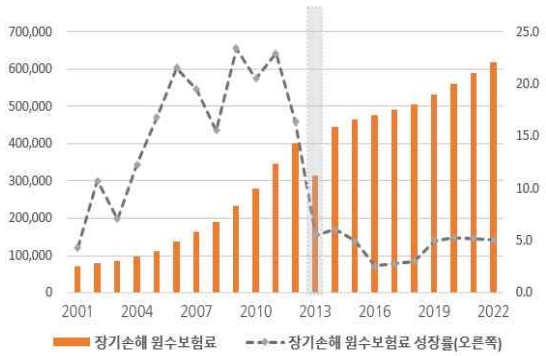
〈그림 Ⅱ-5〉 생명 개인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업무보고서」

〈그림 Ⅱ-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업무보고서」